



중국 금융규제의 최근 동향

이소양 연구원

2018년 4월 중국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은행업 투자 규제와 은행 설립 조건,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경영권 확보 및 보험회사 설립 조건 등을 완화함.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투자를 자기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상품 판매 억제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상품 원금 및 수익률 보장 행위 금지, 상품별 레버리지 관리 등을 규정함

■ 2018년 4월 중국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은행업 투자 규제와 은행 설립 조건,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경영권 확보 및 보험회사 설립 조건 등을 완화함(표 1) 참조

- 은행업 투자와 은행 설립 조건 완화 조치에는 중국 내 은행의 외국인 소유 지분한도 폐지, 외국 은행의 중국 법인과 지점 동시 설립 허용 등이 있음
- 보험업과 관련된 대외개방 확대 조치에는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경영권 확보 허용(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: 50%→51%),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법인 설립 전 사무소 개설 의무 폐지, 외국 보험중개회사의 영업대상 확대(중소기업과 개인까지), 외국인의 보험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진입 허용 등이 있음 - 다만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경영권 확보 허용과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법인 설립 전 사무소 개설 의무 폐지는 관련 규정이 수정 중이며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¹⁾

■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투자는 자기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함

- 국제결제은행(BIS)에 따르면 중국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/4분기 160%에서 2018년 1/4분기 164%로 높아졌음
-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투자 제한은 비금융기업의 과도한 부채 위험이 금융시장으로의 전염 가능성 제거를 위한 조치로 분석됨

1) EY(2018. 6), “解读《银保监会加快落实银行业和保险业对外开放举措》”

-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투자 제한에는 투자 자금 규제 외에도 투자 자격, 지배구조, 거래공시 등이 있음
 - 레버리지가 과도한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함
 - 비금융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피투자 금융회사에 이사회 수립을 제시함
 - 비금융회사와 피투자 금융회사 사이에 거래 발생 시 거래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 제도 수립을 요구함

〈표 1〉 중국 금융규제의 최근 동향

금융규제	주요내용
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	1. 은행업과 관련된 대외개방 확대 조치: 1) 중국 내 은행의 외국인 소유 지분한도 폐지, 2) 외국 은행의 중국 법인과 지점 동시 설립 허용 2. 보험업과 관련된 대외개방 확대 조치: 1) 외국인의 생명보험회사 경영권 확보 허용(외국인 소유 지분한도: 50%→51%), 2)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법인 설립 전 사무소 개설 의무 폐지, 3) 외국 보험중개회사의 영업대상 확대(중소기업과 개인까지), 4) 외국인의 보험대리업무 및 손해사정업무 진입 허용
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투자 제한	1. 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투자: 자기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 2. 투자 자격: 레버리지가 과도한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 3. 지배구조: 비금융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수립 4. 거래공시: 비금융회사와 피투자 금융회사 사이에 관련거래가 발생 시 정보공시 제도 수립
자산관리상품 판매 규제	1. 자산관리상품의 정의: 은행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, 신탁사, 증권사, 펀드, 보험사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2. 상품 분류 기준: 1)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, 사모, 2) 투자된 기초자산에 따라 고정수익형 상품, 주식형 상품, 파생금융상품형 상품, 혼합형 상품 3. 상품별 레버리지 관리: 공모 및 사모 상품의 부채비율은 각각 140%, 200% 이하로 설정

자료: 중국 국무원 보도자료(2018. 4), “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개방 조치 가속화 방침”; “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의견”; “금융회사의 자산관리업무 규범화에 대한 의견”

■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상품 판매 규제에서는 자산관리상품의 원금 및 수익률 보장 행위를 금지하고, 상품별로 레버리지를 관리하도록 함

- 중국 자산관리상품 시장규모는 2010년 15조 위안에서 2017년 100조 위안으로 급증했으며, 자산관리상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, 채권 등 관련 금융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번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상품 판매 규제는 자산관리상품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음
- 자산관리상품은 원금 비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명시하며 금융회사의 암묵적인 원금 및 수익률 보장 행위를 금지함
- 상품별로 레버리지 관리는 공모 상품의 부채비율을 140% 이하, 사모 상품의 부채비율을 200% 이하로 설정하였음 **kiri**